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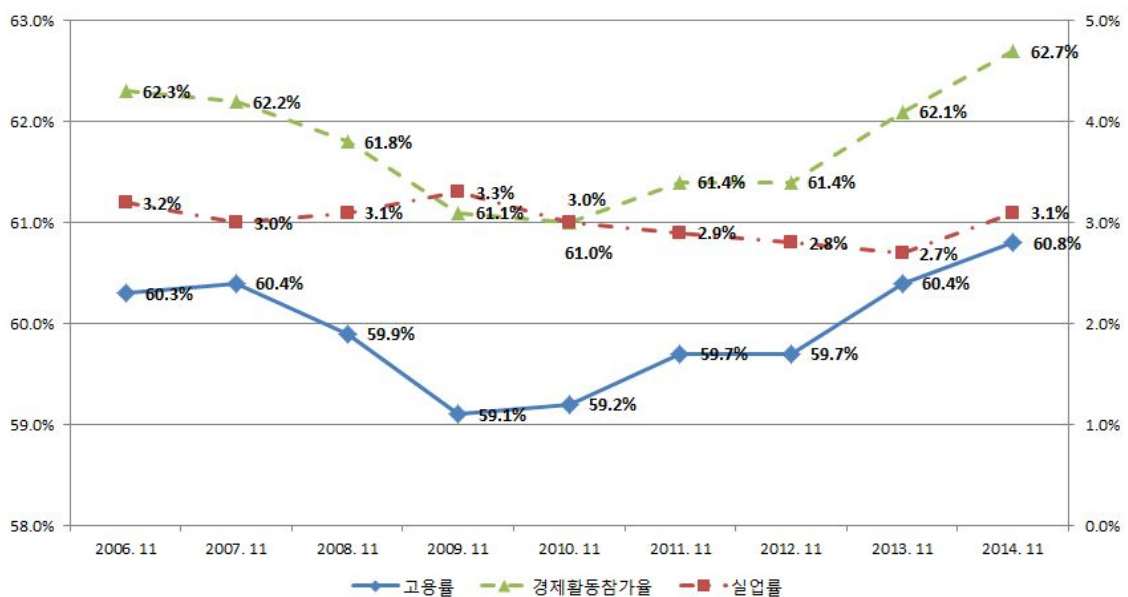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2014년 11월 노동시장 분석

2014.12.19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2014년 11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4년 11월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7%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금융위기 이후 고용지표 개선 지속.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일을 하고 있는 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음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11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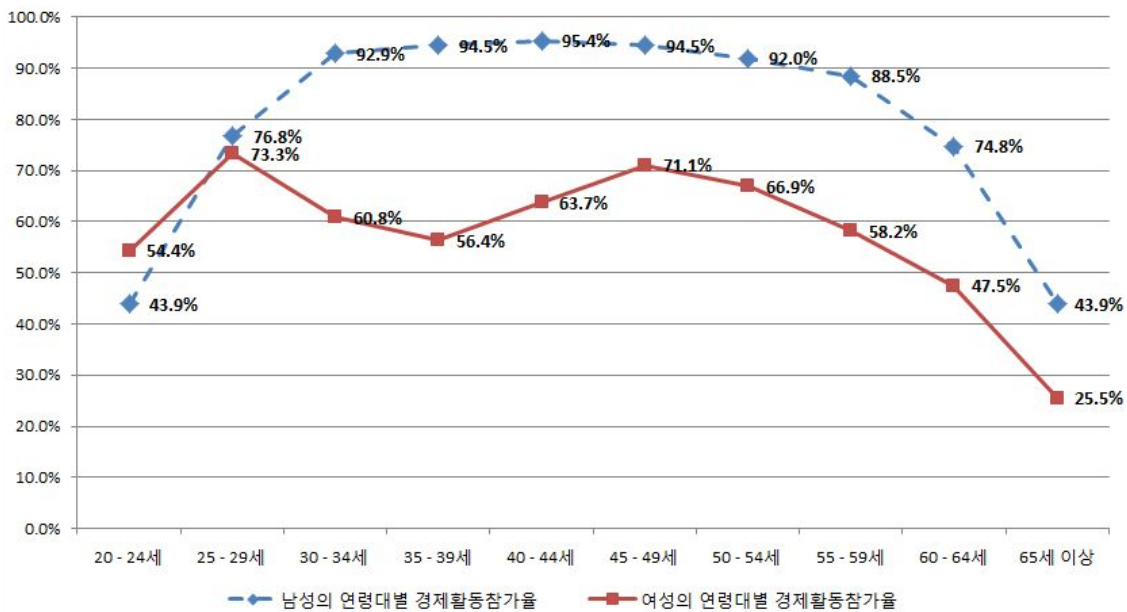
※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여성 고용률은 50.3%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전월과 마찬가지로 50% 이상을 계속 유지함
- 하지만 여전히 성별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는 매우 큰 수준임
-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관련이 있음. 여성의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30세 이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성별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30세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줄어들어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사이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은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의 고용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시장 내 지위로 이어지고 있음

[그림 2] 성별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

- 취업자는 2,596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만 8천 명 증가
-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5만 8천 명), 도매 및 소매업(13만 6천명), 제조업(10만 2천 명), 건설업(8만 4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 6천 명), 교육서비스업(6만 7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8만 5천 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4만 6천 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4만 3천명), 금융 및 보험업(-3만 8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임. 2014년 11월 현재 177만 4천 명이 종사하고 있음.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와 함께 지속적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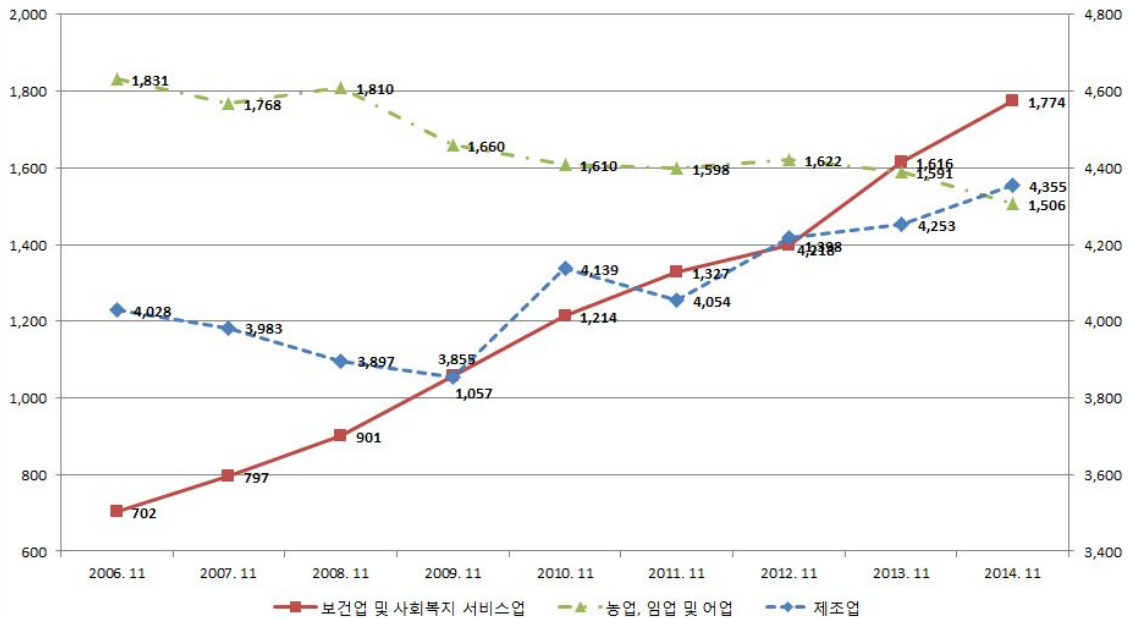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인 취업자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제조업 취업자 수는 435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2천 명 증가함. 2008년 385만 5천 명까지 줄어들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임
-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2008년 11월 현재 181만 명이었던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2014년 11월 현재 150만 6천 명으로 줄어들었음

[그림 3]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농림어업 취업자 (단위 : 천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농림어업은 좌측 축, 제조업은 우측 축 참조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취업자 수 증가는 50대 이상 중고령층이 이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14년 11월 전년동월대비 50대 취업자 수는 19만 3천 명이 증가하였고,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2만 1천 명이 증가함. 5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는 41만 4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44만 3천 명의 대부분을 차지함
- 청년층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20대는 취업자 수가 4만 4천 명 증가한 반면, 30대의 경우 3만 4천 명 감소함
- 청년고용문제가 지속된 반면, 중고령층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노동시장 내 중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전년동월까지만 해도 20대 취업자 수가 60세 이상 취업자 수보다 많았으나, 올해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남. 2014년 11월 현재 60세 이상 취업자의 수는 370만 명으로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 365만 8천보다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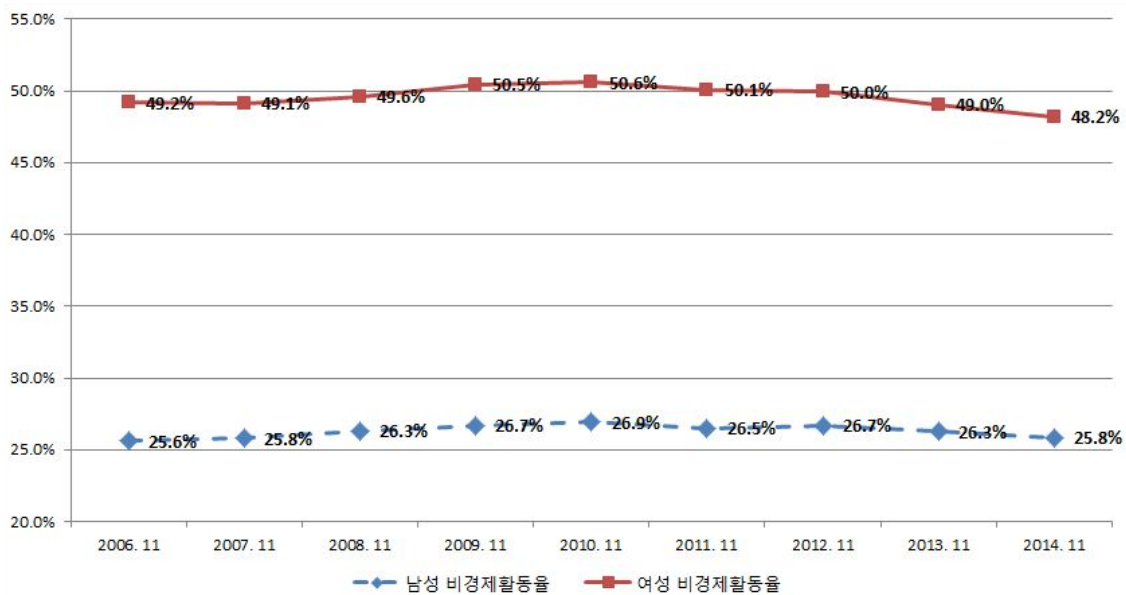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8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8천 명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1,590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3천 명 감소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39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1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1,050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2천 명 감소함
-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경제활동율이 높음.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가사와 육아 등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향후 지속적인 여성의 고용률 상승을 위해서는 여성의 높은 비경제활동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그림 4] 성별 비경제활동율, 각 연도 11월 (단위 :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및 실태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및 특성

- 통계청은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607만 7천 명으로 발표함. 이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32.4%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해당됨
- 이런 정부의 통계와 달리 노동계는 동일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해 비정규직 규모를 852만 2천 명으로 추계함. 이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45.4%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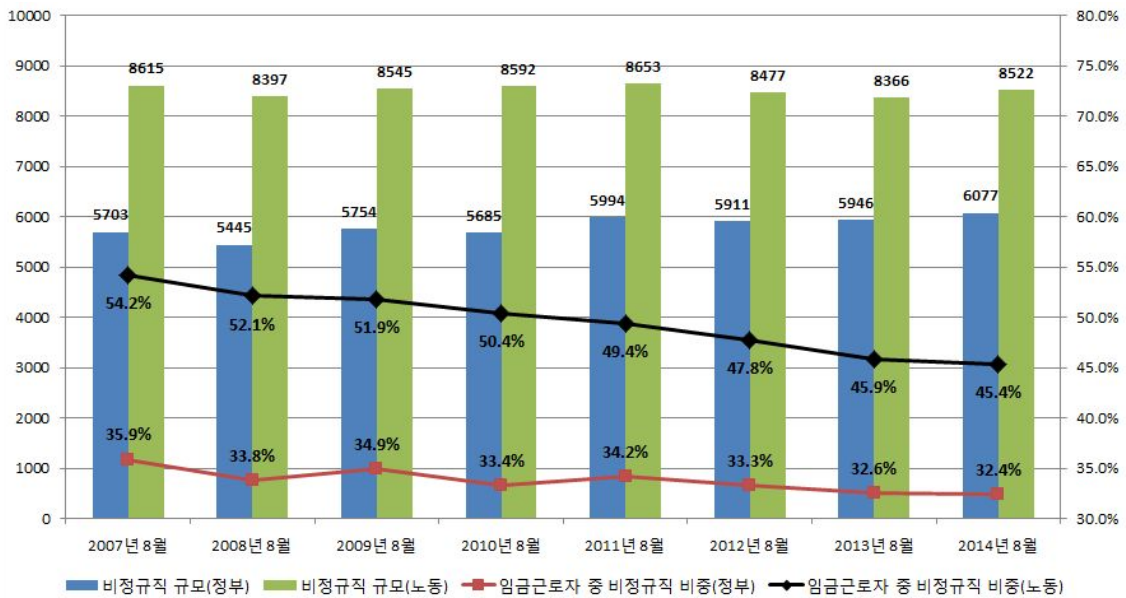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비정규직 규모 차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개념 차이에서 비롯됨. 정부의 경우 고용기간이 제한된 한시적 노동자, 파견직이나 용역직과 같은 비전형 노동자, 전일제 노동자가 아닌 시간제 노동자와 같이 고용형태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동계의 경우 고용형태상 정규직 노동자에 해당하더라도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과 일용직인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로 보고 있음¹⁾

[그림 5]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규모 (단위 : 천 명, %)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규모는 좌측 축, 비중은 우측 축 참조
※ 출처 : 각 연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 추계

- 최근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에 따르면 여전히 임금근로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²⁾
- 전체적인 비정규직 비중은 줄어드는 가운데 비정규직 일자리 중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음. 2014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노동자들의 비중은 10.8%로 2007년 8월 7.6%에 비해 3.2%p 증가하였음

□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성

-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는 여성 노동자들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2014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은 비중은 53.6%임. 이는 정규직 중 여성의 비

1) 노동계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개념은 “김유선 (201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4-22”를 따르고 있음
2) 이후에는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르고 있음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을 34.8%와 대비됨

- 성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역시 여성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56.1%인 반면, 남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37.2%로 나타남
-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 기업규모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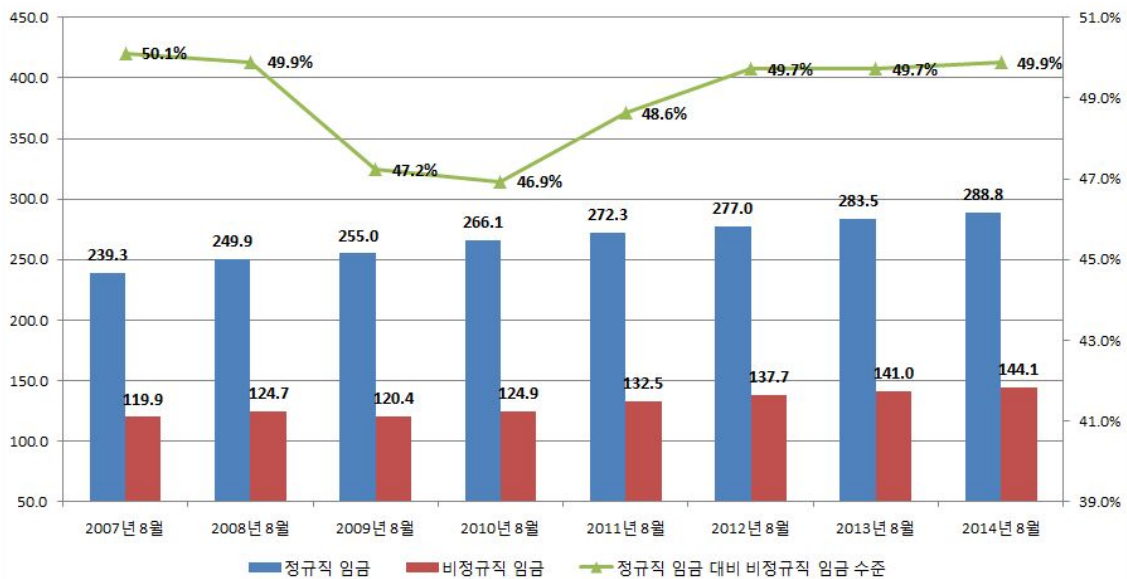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 중	79.4%	57.5%	44.3%	33.5%	21.4%	14.9%

※ 출처 :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이용 추계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

-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014년 8월 현재 월평균 임금은 144만 1천원임. 이는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288만 8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큰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것임

[그림 6]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 (단위 : 만원, %)



※ 임금은 좌측 축,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우측 축 참조

※ 출처 : 각 연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 추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이런 임금격차는 직무의 차이나 일의 특성 차이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차별적인 임금격차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차별적 임금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승진이나 훈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고용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임금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개선 정책도 필요함
-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이와 같은 임금 격차가 지속될 경우 노동시장 내 임금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음. 그리고 이는 사회 전체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임금 수준이 낮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근로빈곤층(워킹푸어, Working Poor)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 근로빈곤층은 일을 해도 빈곤 상황을 못 벗어나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저임금 일자리의 확산과 함께 최근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되어야

- 비정규직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일자리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에 직면하는 가운데 사회보험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있어 직장가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40% 미만의 노동자들만이 직장가입을 통해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2014년 새사연의 ‘이슈진단’ 목록

2014년 12월 19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경제	1/15	지뢰밭 속 순항?	정태인
한국경제①	1/16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한국경제②	1/17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혜노믹스	여경훈
복지①	1/20	박근혜 정부식 보건의로, 민영화 폭탄	이은경
돌봄	1/21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이 되려면	최정은
주거	1/24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	강세진
노동	1/28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
복지②	1/29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이은경
노동	4/14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김수현,강세진,최정은
노동	4/17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는 무엇인가?	김수현,강세진,최정은
노동	4/21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 제안	김수현,강세진,최정은
주거	5/12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 주거	강세진
경제	5/19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 경제 ①	정태인
정치	5/22	민주주의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이은경
경제	5/26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 경제 ②	정태인
노동	6/2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은경
경제	6/5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①	강세진
경제	6/16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②	강세진
복지	6/17	박근혜 2기 개각, 복지축소와 민영화의 신호탄?	이은경
경제	6/19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락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이상호
의료	6/23	박근혜 정부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이은경
의료	6/26	이제 그런 핑계 대지마	이은경
복지	7/10	돌봄서비스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제언	최정은
노동	7/14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질적 개선 정책도 추진되어야	김수현
경제	7/29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 앞으로도 계속 될까?	김수현
사회적경제	8/4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1) : 사업이 번창해도 실패한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5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2) :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8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3): 무리한 확장과 무관심이 발목을 잡다	이수연
경제	8/22	여전히 심각한 빈곤문제, 더욱 악화된 중고령층 빈곤	김수현
주거	8/25	마을계획 : 주민들의 일상적 사고와 활동의 순환과정	강세진
경제	9/2	MB정부보다 더 강화된 풀뿌리 관광육성정책 파괴	정란수
보건복지	9/5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틀렸다	이은경
보건복지	9/11	9시 등교, 과학적 근거로 접근해보자	이은경
고용	9/12	2014년 8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의료	9/15	민영화를 민영화로 돌려막는 박근혜 정부	이은경
주거	9/16	주택구매 수요계층 전환기, 값이 떨어져야 시장이 살아난다	강세진
주거	9/22	80년대 이후 주택가격추세 분석	강세진
사회적경제	9/25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이수연
보건복지	9/26	표류하는 공무원 연금	이은경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노동	9/30	증가추세의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질적 측면 제고해야	김수현
사회적경제	10/10	유럽의 여섯 가지 지역화폐 실험 소개	이수연
복지	10/14	건강보험 부과체계 논쟁, 소득·자산 의미 없다	이은경
노동	10/16	2014년 9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10/20	주택의 사회적·경제적 속성, 그리고 사회주택	강세진
복지	10/21	공무원 연금 개악, 대대적 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	이은경
정치일반	10/30	제19대 국회 입법활동현황 : 국회의원들의 '실적주의' 그림자	이상동
주거	11/3	매점된 주택의 비극 <끝없는 전세가 상승>	강세진
주거	11/5	사회주택과 사회적 경제주체 활성화	강세진
노동	11/13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4년 10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사회적경제	11/17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이수연
돌봄	11/21	불행한 방과 후, 외국은 무엇이 다른가?	최정은
돌봄	12/1	돌봄서비스까지 '시장화', 이대로 괜찮은가?	최정은
주거	12/4	주택시장동향분석(3) : 주택시장동향과 여론추이 <2014년 11월>	강세진
사회적경제	12/8	[잇:북] 지역화폐 A to Z	미디어팀
보육	12/11	누리과정 파행, '땀질식 처방'으로는 막을 수 없다	최정은
노동	12/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4년 1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